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단이 190회 임시회에 앞서 삼귀의를 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쇠신입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 사부대중 운영·재정 투명화

조계종 중앙종회 190회 임시회... 쇠신입법 만장일치 의결

사찰 운영에 대한 사부대중 참여가 명문화됐다. 조계종 일선 사찰에서는 불전을 제외한 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시스템 활용이 추진된다.

조계종중앙종회(종회회장 보선)는 6월 21일 제190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발의로 제출된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전문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예산회계법' 일부 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일선 사찰들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사찰운영위원회가 기존 협의의 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조계종 사찰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찰 예산, 결산 △특별 불사와 수익사업 승인 신청 △사찰 부동산 매각, 임대, 사용승낙, 증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한 승인신청 △신도의 상벌 △사찰 자체 감사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징계조항도 새로 삽입됐다. 운영위원회법을 위반했을 경우 총무원법 상 징계를 받게 되며, 해당 사찰에서는 행정 제재를 할 수 있고, 민형사상 조치도 가능해졌다.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에 따라 일선 사찰 예산회계 원칙들이 명문화

됐다. 재정사고 등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사찰은 전문회계사를 통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며, 사찰등급조정 규정상 24등급 이상인 사찰은 일반직 총무원을 두고 경리회계 총무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총무원이 지정한 전산 프로그램 도입이 의무화되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과 영수증 발급을

사찰운영위, 심의기구 격상
영수증 발급·신용카드 도입도
선거법 제정... 공영제 추진
의원 불징계권 삭제 아닌 축소

통해 사찰 재정 투명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은 별도 통장에 교구본사와 공동예치하게 해 사찰 재산을 투명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총무원장선거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교구총회의원선거법은 선거법 제정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공명선거위원단이 구성되며 경직이 금지된 직급의 소임을 보고 있는 후보자는 후보 등록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사찰분담금을 2년 이상을 체납하게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징계조항도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선거법 위반 행위 징계를 받을 경우 형량과 관계없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해당 금품 10배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들 법안 통과로 총무원은 1차 쇠신계획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재정 투명성 제고, 사부대중 공의,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쇠신 계획의 기초가 모두 법제화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쇠신법안과 더불어 중도들의 기대를 모았던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삭제는 축소에 그쳤다. 종회의원들은 집행부 감시를 명목으로 불징계권을 다룬 종헌 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시켰다.

삭제를 반대한 종회의원들은 "불징계권을 통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을 할 것이 없다. 종단의 올바른 견제를 위해 소신 있게 발언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해 여론과의 온도 차가 상당함을 보여줬다.

이번 종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사 개

진이 활발했다는 점이다. 특히 19년 만에 이뤄진 종헌 개정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종단 주요 소임의 자격 요건을 '비구'가 아닌 '승려'로 조문을 고치고, 교무원장이나 포교원장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거침없이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세민스님 사직에 따라 공석이 된 재심회위원에는 정만 스님을, 종헌개정 및 종법제정특별위원회에 삼희 스님과 일관 스님이 각각 선출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성명서'와 '창조론 계열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진화론 부정'에 대한 시정성명서 채택과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정성화 촉구' 및 '불교닷컴 종단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 결의'를 일괄 통과시키고 회기를 단축해 6월 22일 폐회했다.

한편, 조계종 쇠신법안 통과에 대해 불교계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6월 22일 발표한 환영 논평에서 "조계종중앙종회 제190회 임시회에서 제1차 쇠신법안이 통과된 것을 모든 청년불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법 사찰 파문... 들끓는 불교계

조계종 비대위, 여야 양당 방문해 방지법 촉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조계종이 강경 대응에 들어갔다.

조계종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대오, 범광, 이하 조계종 비대위)는 6월 19일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을 차례로 방문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 공동위원장 대오 스님은 "최근 불법사찰 관련 검찰 조사결과 발표는 매우 부실하다. 진실 속이나 은폐 의도가 담겨 있다"며 "불법사찰은 헌법을 파괴한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성토했다. 이어 스님은 "각 정당은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비대위는 6월 18일 첫 회의를 열고 중앙종무기관과 사찰에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출입이 통제하는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계종 비대위는 향후 대응책으로 △직영, 직할 사찰, 교구본사에 불법 사찰 규탄 현수막 게시 △민간인 사찰 방지법 제정 촉구 △정외대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청와대 시위에 대한 내용과 일정은 실무팀이 확정하기로 했다.

조계종 비대위는 국무총리실과 검찰에 불교계 불법 사찰 공개 요청



조계사 사부대중은 6월 20일 초하루 법회에서 '한국일보'를 규탄했다. 불교계의 불법사찰 관련 압박이 들끓어 더 번지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에 사정기관 출입 통제 현수막 게시 등 강경 대응 보고서 논란 '주간한국' 압박

과 불법 사찰 의혹 사례 접수(6월 20일~7월 10일)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대위는 향후 이 같은 불교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비대위는 대규모 규탄법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기존 6명이었던 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결의했다.

일선 사찰과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조계사 호법위원

회는 6월 22일 한국일보 사옥을 향의 방문해 이상석 한국일보 사장과 면담했다. 이날 조계사 호법위원회는 <주간한국>이 인용보도한 보고서의 진위와 이세우 조계사 총무과장에 대한 한국일보 종교담당기자의 협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이상석 사장은 경위파악을 약속하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우 비대위는 대규모 규탄법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조계사는 6월 20일 열린 초하루법회에서도 <주간한국>과 모회사 <한국일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교사직무면수 : 경기교육 2012-0129

교사직무면수 모집
"인성교육을 위한 셀프 리더십 과정"

교실의 행복

NAVER 교실의행복

모집대상 | 전국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종사자 전체
교육일정 | 2012년 6월 (월)~8월 10일(금) (09:00~16:00, 5일간 - 총 30시간/학점 인정)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모집기간 | 2012년 7월 30일(금) 수강료 | 7만원
신청방법 | 내이비블로그 '교실의행복' / www.hansi.org / hansi@hanmaum.org 로 신청 가능
문의 | (재) 한미유선원 한미교육원 031-471-6926~7 * 월요일 휴무

한미유선원
한미교육원

894호 INDEX

종단 조계종 출가학교 250명 지원 테고종 중회 종단 부채 논의	2
종합 재정 공개 사찰 무엇이 다른가 문화 체험놀이로 여름방학 나기	3
시방세계 헤민 스님 마음치유 콘서트	5
불자세상보기 교과서 진화론 삭제 논란	31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마음의 뿌리, 자기생명의근본으로 곧장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1 www.hyunbulshop.com